

6월 사업진행과정 소개

도농교류협력사업

도농교류협력사업은 도시소비자·청소년들의 농업·농촌현장체험 및 문화서비스 등을 통해 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주체로는 사업계획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를 주체로 하며 예산은 08년 기준 1,720백만원으로 국고80%, 자부담(참가자)20%로 지원 및 지출되고 있다.

사업유형으로는 농어촌체험사업, 농어촌지킴이사업, 농어촌알리기사업, 농어촌폐교공간활용사업 등이며 한농연은 이중 농어촌체험사업에 공모 채택되었다.

한농연은 09년 도농교류협력사업 ‘학교급식담당자 친환경농산물생산지 견학’ 사업을 실시중이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99년부터 농업인·소비자·정부가 연대를 통해 농업·농촌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전에는 농·소·정 협력사업으로 명명됐으나 08년부터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통합되어 변경 추진되고 있으며 03년부터 문화사업, 05년부터 소비자교육 분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한농연의 09년 도농교류사업 ‘학교급식담당자 친환경농산물생산지 견학’으로 학교급식관계자의 직접적인 농촌체험과 친환경농산물생산지를 견학함으로써 미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급식만큼은 우리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농어민과 도시민이자, 최대소비자인 학교급식담당자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의식 고취로 우리농산물 판매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농연 09년 도농교류사업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체험 장소	날짜(08:30~18:00)	대 상 자	중 심 권 역
양평	09년5월15일	학생/운영위원/학부모	중서부(은평,마포,서대문)
괴산	09년6월13일~14일	학생/학부모/운영위원	관악·동작
철원	09년7월27일~29일	학생/학부모/교사	강북 (성북,북부,강북)
양평	09년10월9일	학생/운영위원/학부모	중서부(은평,마포,서대문)
서산	09년10월23일	학생/운영위원	강남동 (성동,송파,강동)



2009년 도농교류협력사업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현장"



지난 5월에는 양평 영화마을과 6월달에는 한농연 도농교류사업 2차 사업지인 괴산 사가막마을을 다녀왔다. 5월에는 중서부 지역 학교급식 담당자(교사)와 학생들이 6월에는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 및 급식관계자 가족 80여명 참여했으며 도시민 및 청소년 어린이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의 소중한 경험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우리 농산물을 먹고 자라날 수 있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바라며 위의 일정과 같이 한농연 도농교류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